

# 전남도, 최강 한파로부터 취약계층 보호한다

###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등 보호 20개 사업 1333억 투입 위기가구 발굴·난방비 지원·돌봄 강화 등 복지대책 추진

전남도는 올겨울 기록적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는 등 동절기 보건 복지종합대책으로 20개 사업에 1333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에서 발굴한 위기 가구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 제도와 연계해 1인

가구 기준 생계유지비 월 71만3000원,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여기에 전기요금,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혜택을 동시에 누리도록 더 촘촘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 전남도 명품 복지브랜드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지원 대상 생계가 어려운 일반 도민까지 대폭 확대하고 보일러 교체 등 난방시설 수리, 화재예방

점검, 생활안정금 최대 70만원 지원, 노후주택 개선사업 최대 150만원 지원 등 두터운 복지지원을 펼친다. 한파 등으로 질병·부상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돌봄 서비스 자력에 못 미치는 도민에게는 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한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등과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 김장김치 5500박스 배부, 연말연시 기부금 모금액 114억원 달성 추진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집중한다. 모든 시·군 9275개 경로당에는 시설을 찾는 어르신

의 따뜻한 생활을 위해 난방비를 월 40만원, 양곡비를 월 5만2000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경로당별로 발생하는 운영비 잔액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식사 밑반찬이나 재료 구입비 등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노인복지관 등 138개 경로당에 무료 식사 제공, 등록장애인 6500명에게 상시 안부 확인, 방한용품 지원, 가사·이동보조 등 겨울철 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에게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시군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45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랭질환자 발생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두텁고 더 촘촘한 겨울나기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전남형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한파 발생 빈도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는 올겨울 도민 모두가 따뜻한 생활을 누리도록 민·관 협력체계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이동반장,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나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 120번, 복지위기 알림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진도 길은푸르미 마을 '농어촌 체험' 전국 최우수

### 농림부 선정...영농 어촌체험·남도국악원 국악체험 등 멋·흥 인기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진도 길은푸르미 마을이 전국 최우수 체험마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매년 귀농귀촌 포털 사이트인 '그린대로'에 등록된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마을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가자 활동 내역, 참가자 만족도, 귀농어귀촌 실적 일자리 및 주거 제공 등을 평가한다. 올해는 전국 120개 마을 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한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상위 10개소를 뽑고, 이 중 상위 5개소 마을(전남·충북·경북 2·경남)에 대해 발표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12월 11일 시상식과 함께 사업성과

를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진도 길은푸르미 마을이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프로그램 구성도와 참가자 만족도, 귀농어귀촌 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귀농어귀촌 1번지 전남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길은푸르미 마을은 지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교를 리모델링해 2012년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았다. 11실의 숙박시설과 교육관, 잔디운동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췄다. 이번 평가에서는 귀농어귀촌인에게 영농, 어촌 체험은 물론 지역 특성을 살린 남도국악원(진도 '흥') 국악 체험, 진도 흥주 만들기, 울금을 활용한

특산물 요리 체험 등을 통해 진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소개했다. 또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일자리 알선과 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이 평가위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정책년인민국장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어귀촌인에게 전남의 매력을 느끼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활성화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전남도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농식품부가 2021년 신규사업으로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없이 각 시·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TP 청년 직무역량개발 및 정착 지원 워크숍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오익환)가 최근 여수시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4개 기업, 50여명의 기업 관계자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개발 및 청년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

육(법무법인 신원, 배향미 변호사)과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테마프로그램(상상창작소 봄, 김정현 대표), chatGPT 업무 활용 프로그램(AI 미래가치개발원, 대표 조은이), 청년근로자 노무 상담 및 직무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남해안권 MICE 산업 활성화' 아시아 4개국 팸투어

전남관광재단·경남관광재단 공동 전남관광재단이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지난 22일까지 4일간 남해안권 MICE(전시 컨벤션, 회의, 포상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의 주요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과 인프라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여수 예술랜드와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비롯해, 근대역사관과 목포해관1897 등 전남의 대표적인 문화재 및 관광지를 둘러보며,

MICE 행사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관광 자원을 체험했다. 또 지역 내 우수한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도 찾아 MICE 행사 유치 및 개최에 적합한 인프라를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 겨울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담은 '겨울남도여행' 책자를 제작해 수도권 관광안내소 등 전국 주요 여행 관련 기관 225개소 등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전남 22개 시군에 대한 ▲겨울 대표 관광지 ▲연계 관광지 2곳 ▲지역별 대표 계절 별미 ▲추천 여행 코스 ▲12-2월 남도축제 등을 담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 전라권 최우수 시설 선정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 공모'에서 전라권 최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국민체육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 결과,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246개 국민체육센터 중 전라권(광주·전남·북) 최우수시설의 영예를 안았다. 문광부 등은 수도권, 충청·제주권, 전라권, 강원·경북권, 경남권에서 권역별로 최우수 기관 1개소씩 총 5개소를 선정했다.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66억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3299.15㎡)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췄다. 여수망마국민체육센터는 마감 시간을 오후 8시 50분까지 확대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공개 추천해 이용자를 선정하는 등 시민을 배려한 프로그램을 운영,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전남도, 대형산불 예방 숲가꾸기 나서

### 30일까지 순천 등 12개 시군 342ha 대상 산림청 '봄철 산불 예방 최우수기관' 선정

전남도가 오는 30일까지 순천 등 12개 시군 산불취약지와 산불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342ha 산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실시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하고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드는 숲가꾸기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주택, 도로, 산림휴양시설, 문화재 주변 등 산불 취약 지역의 나무 밀도를 조절하고, 산불의 시발점이 되는 가지, 낙엽, 하층 식생 등을 제거·관리해 산불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림 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나무림을 속아베고 산림 외부로 반출해 불에 탈 수 있는 연료의 양을 줄임으로써 산불의 대형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산물을 '사랑의

떨감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산림청의 2024년 봄철 산불 예방·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방지 역량과 예방·대응 이행에 대한 모든 과정에 대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봄철 기간 9대의 산불 입찰해결 조기 투입, 체계적 산불감시 및 산불대비·대응 활동을 통해 최근 10년 중 가장 적은 12건, 전국 최저 수준의 산불이 발생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숲을 조성하고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화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